

臨時政府 歡迎辭

[東亞日報] (1945년 12월 19일)

오늘 大韓民國 臨時政府 諸位를 맞이하여 歡迎會를 開催하게 된 것은 우리 三千萬 民衆의 無限한 感激으로 여기는 바이며 또한 이자리에서 歡迎의 辭를 올리는 本人의 無雙한 光榮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생각컨대 庚戌以來 倭敵은 이 땅을 유린하고 이 百姓을 苛虐할지라 政府 諸位는 死線을 뚫고 怨淚를 머금은 채 海外로 亡命한지 三十六個星霜, 雨慘風中에도 一意初一念을 굽히지 않고 오직 祖國의 光復을 爲하여 毅然히 血鬪勇戰하여 왔습니다. 特히 一九一九年 民族自決의 時局에 따라서 三千里 坊坊曲曲에 充溢한 獨立萬歲소리에 呼應하여 李承晩博士를 初代 大統領으로 推戴한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樹立은 世界에 우리 民族의 存立을 宣揚하였고 一九三二年 四月 二十八日 上海事變이 終局을 告할 즈음 金九主席의 用意周到한 指導下에 義士 尹奉吉先生의 舉事는 倭將 白川을 爲始하여 文武 巨頭를 爆死 或은 重傷케 함으로써 우리 民族의 聲價를 天下에 周知시켰습니다. 어찌 그것뿐이셨습니까. 勇略 無比한 義血團의 活動을 비롯하여 許多한 革命的 事實은 마디마디 民族鬪爭의 歷史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點들을 想起할 때 金九主席 李承晩博士를 爲始하여 政府 諸位의 우리에게 준 貢獻이야말로 實로 絶大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오늘 三千萬 民衆이 政府 諸位를 맞아 歡呼하는 것은 決코 偶然한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內外情勢를 環視하건대 우리나라는 八月 解放된 以來 獨立이 約束된 채 疆土는 斷絶되고 思想은 分裂하여 容易히 統一되고 獨立될 氣運이 看取되지 않을 뿐더러 聯合國의 分割 軍政은 國際적으로 微妙한 動向을 示하여 完全한 自主獨立의 達成에는 아직도 前途가 요원한 感이 없지 않나니 政府 諸位를 맞이하여 歡迎하는 이날에 있어서 이러한 報告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우리는 眞實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事態는 時急한 解決을 要하나니 그 解決方法은 오직 한가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一九一九年 以來 우리 民族의 政治力의 本流로서 信念해 왔던 臨時政府가 中核이 되어서 모든 亞流 支派를 求心的으로 凝集함으로써 國內統一에 絶對의 領導를 發揮하는 동시에 우리의 自主獨立의 能力을 國外에 宣示하여 急速히 聯合

國의 承認을 要請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政府 諸位의 政治的 力量과 手腕에 期待하는 바 크다 하겠거니와 우리도 政府 諸位의 賢明한 指導에 協力함으로써 國民으로서 擔負하여야 할 實務에 絶對로 忠實할 것을 盟誓하는 바입니다. 蕪辭로서 歡迎辭에 대신합니다.

大韓民國 二十七年 十二月 十九日